

CURRICULUM VITAE

황인권

인권엔파트너스



[학력]

1997 침례신학대학교 신학과
2011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대학원 IDAS Digital Media Design M.Des.

[경력]

2021-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겸임교수
2017 국제백신연구소 브랜드 자문
2016 국세군 홍보 자문

[관심분야]

- Medical Branding
- Data Visualiazation

[논문]

1. 대한의학회 리브랜딩 2015
2.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리브랜딩 2016
3. 국제백신연구소 IVI 리브랜딩 2017
4. 대한내과학회 리브랜딩 2017
5. 대한당뇨병학회. 대한고혈압학회.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등의 팩트시트 작업

데이터 시각화의 최신 트렌드와 디자이너가 바라본 메디컬 인포그래픽스

황인권

인권엔파트너스, 서울

2013년 풀리처상을 수상한 New York Times의 Snow Fall은 인포그래픽 기사의 유행을 일으켰다. 66개의 모션 그래픽과 1.7만자의 텍스트로 이루어진 심층 보도 기사는 전세계에 영향을 끼쳐, 한국도 많은 신문에서 영상과 이미지,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한 인포그래픽 기사들을 내고 있다. 2020년 중앙일보는 55년 기획 기사, '기후재앙 눈앞에 보다'를 VR 동영상과 입체 사운드 등으로 구성하여 '한국디지털저널리즘 어워드'와 '2020 과학언론상-올해의 의학취재상' 등을 수상하는 등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포그래픽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 왔으나 현대적인 구성의 인포그래픽이 등장하는 것은 1700년대가 되어서였다. 1769년 Joseph Priestley는 A New Chart of History에서 오늘날 쓰이는 인포그래픽과 유사한 형태의 미려한 스토리텔링을, 1857년 Florence Nightingale은 The Causes of Mortality in the Crimean War에서 'Polar Area Diagram'라는 새로운 스타일을 제안하여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고, 의학 인포그래픽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한국은 2020년 인포그래픽 전문 스튜디오 '스튜디오 203(대표 장성환)'에서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말로피에 어워드'를 수상, 국제적인 수준의 인포그래픽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되었다.

오늘날 인포그래픽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

으며 Google Data Studio, Flourish, Tableau와 같이 온라인 툴을 통해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실시간 데이터 인포그래픽을 구현하는 경우가 많으나, 아직까지 의학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의학의 인포그래픽은 인포그래픽 전문 회사나 디자인 스튜디오, 메디컬 일러스트 전문 회사에서 다양하게 생성되고 있는데, 한국 의학 데이터 시각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국제 학술지의 표지 등에 사용하는 메디컬 일러스트레이션이 오래 전부터 간간히 있어 왔으나, 복잡한 의학 정보/숫자를 이용한 데이터 시각화의 지속적인 사례는 대한당뇨병학회에서 2012년 시작되었다. 이후 다양한 대중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는 대한비만학회, 대한고혈압학회 등을 중심으로 그래픽을 사용한 Visual Factsheet들이 학회 차원에서 발행되고, 점점 분량과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팩트시트의 경향은 다음과 같다. 하나는 논문이나 신문 기사 등에 삽입하는 추세를 볼 수 있는 그래프 모음들이다. 다른 하나는 복합적인 정보가 구조화 되는 인포그래픽이다.

소셜 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많은 의학 논문들이 Graphical Abstract와 같이 한 장의 이미지를 통해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서 논문을 알릴 필요가 증가되고 있어, 인포그래픽에 대한 의학 분야의 깊이 있는 접근이 점점 요구되고 있다.